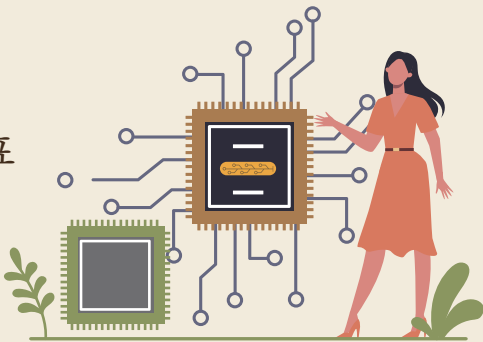


특별기고

비이공계 여성의 반도체 분야 연구소 대표 한국센서연구소의 이수민 대표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민 한국센서연구소 대표는 정치학 전공 박사이지만, 국가과학기술정책분야 특히 국내의 시스템 반도체에 관심이 많아 박사학위를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미국 오스틴 실리콘 힐과 독일 드레스덴 실리콘 색소니의 사례 비교연구)' 주제로 받았다. 2012년부터 한국센서연구소를 설립하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KWSE에서 주관한 여성과기인 대상 창업 컨설팅 멘토로 참여한 이수민 대표의 창업과 여성으로서의 삶을 '3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말로 시작해보고자 한다.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점에서 일어남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매 순간 한계점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몸속에서 불러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법 같은 단어는 하기 싫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으로 저를 키워주었고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벤처기업 CEO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로 9년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대전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센서연구소는 시스템반도체 및 센서의 성능을 높여주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입니다. 우수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유망중소기업, 일하기좋은기업, 공동장비활용주관기업, 고용우수기업, 혁신기업, 여성기업이고, 작년에 R&D 연구개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을 끌고 간다는 것은 제게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카이스트 나노종합기술원에 위치한 한국센서연구소를 경영하면서 주로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인내하면서 임직원들과 함께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비결은 결코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열정과 노력을 남들보다 많이 투자하고, 남들보다 많이 넘어지고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랫동안 건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사이트를 넓혀가는 경험 축적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글에서 세 가지, 비이공계출신임에도, 만학도임에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이공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오빠의 영향으로 어렸을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한 저는 도서관 사서를 꿈꾼 적도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남동생도 법학 전공이고,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니 형제 중에서 이공계 출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석박사 논문은 과학기술정책 분야였습니다. 특히 박사논문은 '반도체산업 첨단 클러스터 구축과 정부의 역할'이었고, 부제는 '미국 오스틴 실리콘 힐과 독일 드레스덴 실리콘 색소니의 사례 비교 연구'입니다. 혁신 클러스터 성장을 분석하기 위해 저는 각국의 반도체 산업을 연구하였습니다. 정치학의 관점으로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치경제, 정치사회, 경제학, 과학기술정책 영역을 동시에 알아야만 했습니다. 박사논문은 문헌에서 나오는 표면적인 이야기보다는 표면 아래에 있는 나무의 뿌리들, 씨앗들까지 관찰하면서 쓰고 싶었기에 한계점에서 오랫동안 견디며 10년 남짓 걸렸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동안 스스로에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고, 시스템반도체와 센서산업, 히든챔피언 육성, 산학연관 협업, 고품질 대한민국 등이 국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CEO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비이공계 출신이 시스템반도체와 센서분야 신뢰성 비즈니스를 시작하자 주변의 비웃음도 많았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시스템반도체와 센서산업은 성장하기 어렵고, 여성이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확신을 가지며, 여성이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히려 과감히 시작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센서연구소는 차별화 포인트로 깊이 있는 시험분석을 통한 소논문 형식의 성적서 제공, KOLAS 규정의 철저한 준수, 윤리경영 등을 표방합니다.

둘째, 만학도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저의 삼십대와 사십대는 다시 하라하면 못할 것 같지만, 두 아이에 대한 독박 육아와 대학원 석·박사 공부로 채워졌습니다. 육체적 힘들보다 지력에 대한 결핍이 더 강해서 어렵고 두렵고 힘든 공부에 무리하게 도전하였습니다. 젊은 이화여대 대학원생들의 공부량을 따라가기 버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학도로서 오히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발로 뛰는 연구를 통해 차별화되는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70년 대생인 제가 세대 차이로 인해 매우 고군분투 중임을 고백합니다. 재작년에 입사한 90년 대생 직원들로 인해 코로나19 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급격히 살이 찌고 체력이 저하되어 잠을 잘 때마다 심장 부위의 통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보안 위반이나 SNS 허위사실 유포,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기, 틀어진 인성 등을 보면서 늦게 학위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학도로서 다른 형태의 세대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 초기에 함께해 준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인성이 훌륭했는지를 깨달았는데, 그들은 S전자와 ETRI 같은 출연연에 재입사해 대기업에서 출연연에서 한국센서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하고 있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전화위복으로 현재는 초기 직원들처럼 성실하고 인성이 좋은 MZ 세대와 협업하고 있어서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에 소파에서 멍 때리는 대신에 1년 가까이 산을 타다 보니, 정신도 맑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시련과 고통은 정신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몸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체력이 있어야 제 안의 결핍도 극복하고, 열정도 재생산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셋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남편이 카이스트 박사과정일 때 학교 옆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하였습니다. 결혼 후 대학원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공단 안의 남편이 다니는 직장 사원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물질적 결핍을 경험한 저는 둘째 아이 출산을 마친 후에 육아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독서논술 교실을 차려 유치원생부터 중등학생을 집에서 가르치며 저축을 하였고, 그 돈으로 서울을 오가며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후반부에 시스템반도체와 센서산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벤처 CEO의 길에 들어섰을 때도 과감히 저의 종잣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주저앉지 않고 결핍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갓집 둘째 며느리이지만, 시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CEO로서 직원들 급여를 주고 동구 달동네에 연탄지원과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현재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아이들도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학교를 세우고 지역이 잘 살도록 돕고 싶다는 작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결핍함을 극복한 사람이 타인 또한 가난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결핍은 평생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우리가 한계점을 만나고 한계점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힘이 있을 때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만나는 나무들이 제각각의 모양으로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심하게 휘거나 구부러진 나무가 오히려 훌륭한 작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것은 제게 큰 공부입니다. 석박사 과정을 통해 책상에서 머리로 하는 것은 어쩌면 공부의 일부였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하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하는 공부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다양한 변수와 마주침, 그 마주침이 축적될수록 매번 깨달음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법 같은 단어를 통해 답이 없고,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수 십 가지, 수 백 가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제 몸에서 다시 불러내려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통해 변화하였고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서비스업인 한국센서연구소의 변화와 성장을 따스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센서연구소 대표
이수민

- 現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사) 부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 평가위원
- 現 한국센서학회 이사
- 前 대전광역시 테크노파크 이사
- 前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